

## 2012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동향<sup>1)</sup>

### 1. 개요

□ 2012년 해외직접투자(유입 기준)는 1.3조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

- 거시 경제의 취약성\*과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009년에 근접하며 회복세 지연

\* GDP, 무역, 투자, 고용 등의 성장률 둔화

\*\* 유로존 위기, 미국 재정 절벽, 주요 국가의 정권 교체, FDI 정책 변화

#### 세계 F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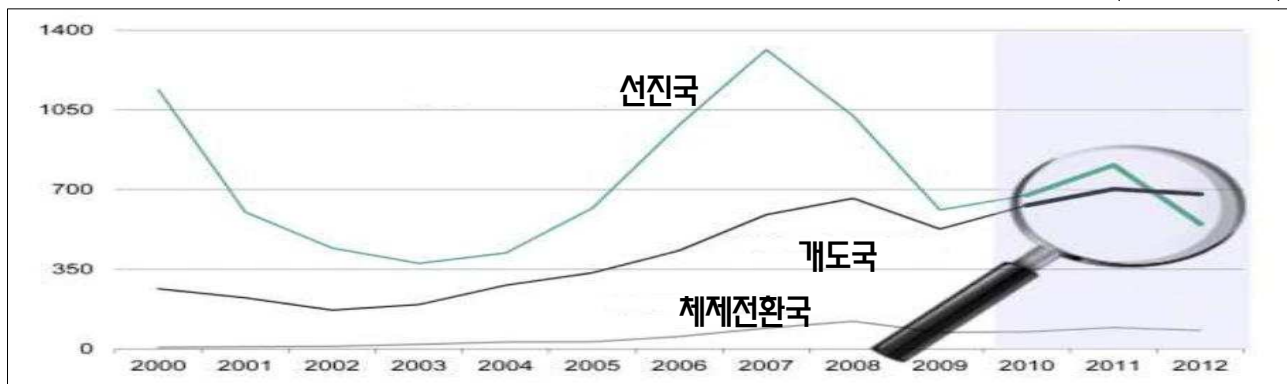
(조 달러)

'05~'07 평균	'07	'08	'09	'10	'11	'12(P)
1.48	2.00	1.81	1.21	1.38	1.60	1.31

-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6,804억 달러를 기록하며 5,489억 달러에 그친 선진국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역대 최초로 추월

#### 선진국, 개도국, 체제전환국 FDI 유입액 추이

(십억 달러)



\* 체제전환국: 러시아, CIS 및 남동 유럽 국가

1) UNCTAD의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13. 1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한국 유입액을 비롯한 2012년 FDI 통계는 UNCTAD 추정치임.

## 2. 지역별 동향 (유입액)

(억 달러)

	2010	2011	2012
선진국	6,749	8,078	5,489
유럽	4,076	4,593	2,935
미국	1,979	2,269	1,467
기타	694	1,216	1,087
개도국	6,309	7,027	6,804
아시아	3,978	4,407	3,990
중남미	1,879	2,170	2,326
아프리카	432	434	458
체제 전환국	752	937	814
합계	13,810	16,042	13,107
(한국)	(101)	(102)	(90)

## 3. M&A 동향

□ 2012년도는 개도국에서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를 확대

(억 달러)

	지분 매각		지분 매입	
	2011	2012	2011	2012
선진국	4,097	2,580	4,009	1,763
유럽	2,004	1,354	1,456	268
미국	1,341	663	1,302	787
기타	752	563	1,251	708
개도국	832	484	1,036	1,146
아시아	553	296	802	859
중남미	207	200	186	281
아프리카	72	-12	48	6
체제 전환국	330	38	135	86
합계	5,259	3,101	5,259	3,101

## 4. 세계 해외직접투자 전망

□ 2013년 1.4조 달러, 2014년 1.6조 달러로 완만한 증가 예상

- 생산, 투자, 무역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국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적인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신규 투자로 전환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임
- 국가채무 축소를 위한 일부 국가의 국영자산 매각 또한 해외직접투자 기업에게 기회 제공

## 5. 시사점

###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유입액의 2.2배 수준('02~'11년)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 유입액 대비 유출액('02~'11년): 선진국 1.4배(미국 1.5배, 독일 2.6배, 일본 8.4배), 개도국 0.5배, 체제전환국 0.6배, 한국 2.2배

\* 2012년도 우리나라 해외투자: 유출액 232억 달러(수은 기준), 유입 90억 달러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규모면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발견하기 힘들며, 국내 투자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로도 큰 폭의 유입액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2000년대 들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30~100억 달러에서 등락

- 2012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의 경우 전 세계 유출액이 금융 위기 이전 3년 평균보다 11.5%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유출액(수은 기준)은 68.2% 증가하여 전 세계 대비 상대적으로 활발

### □ 해외 M&A 활성화 필요

- 2011년말 기준 GDP 대비 해외투자잔액 비율은 선진국이 39.4%이나 우리나라는 14.3%에 불과해 향후 해외투자 확대 여지가 높음

- 특히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 하에서는 저평가 기업과 국영기업 매물이 많을 수 있으므로 기술 및 영업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에 적극적 참여 필요

\* 우리나라 해외 M&A(55억 달러)는 중국(371억 달러)과 일본(356억 달러)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브라질(74억 달러), 말레이시아(93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 □ 금융·비금융 서비스 다양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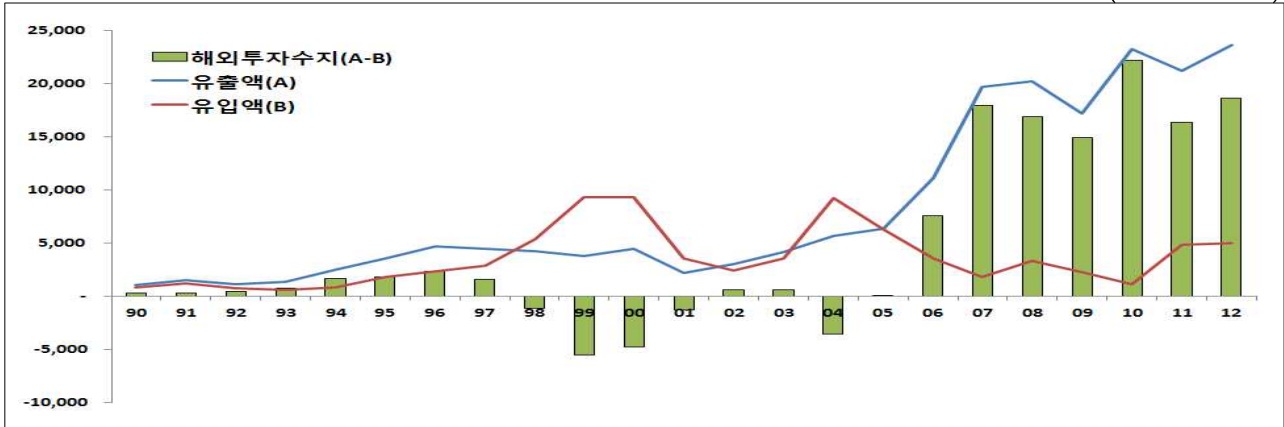
-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M&A 지원강화 등 금융서비스 제공과 아세안,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도국 진출 기업에 대해 투자환경 정보 제공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 강화

<참고 자료>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추이

<유출액과 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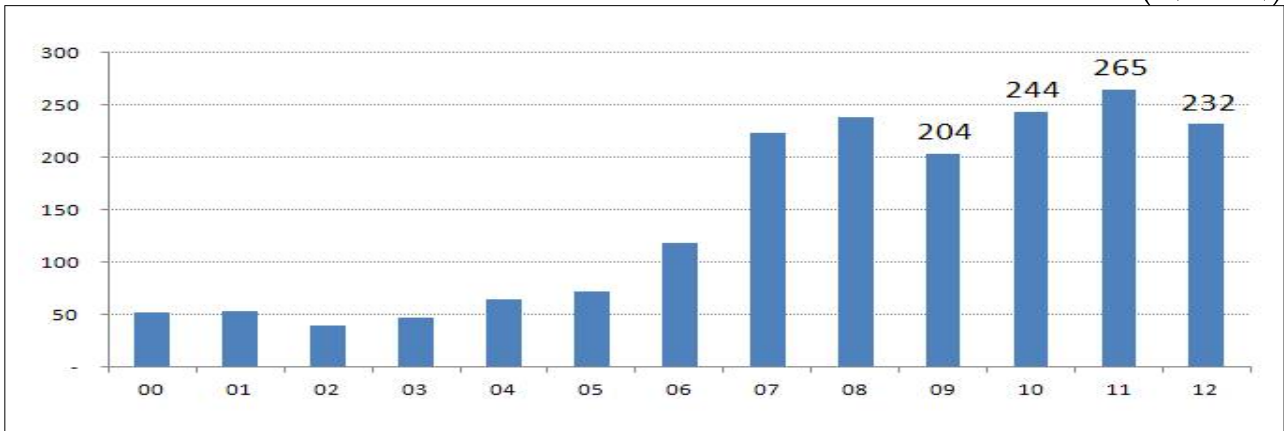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유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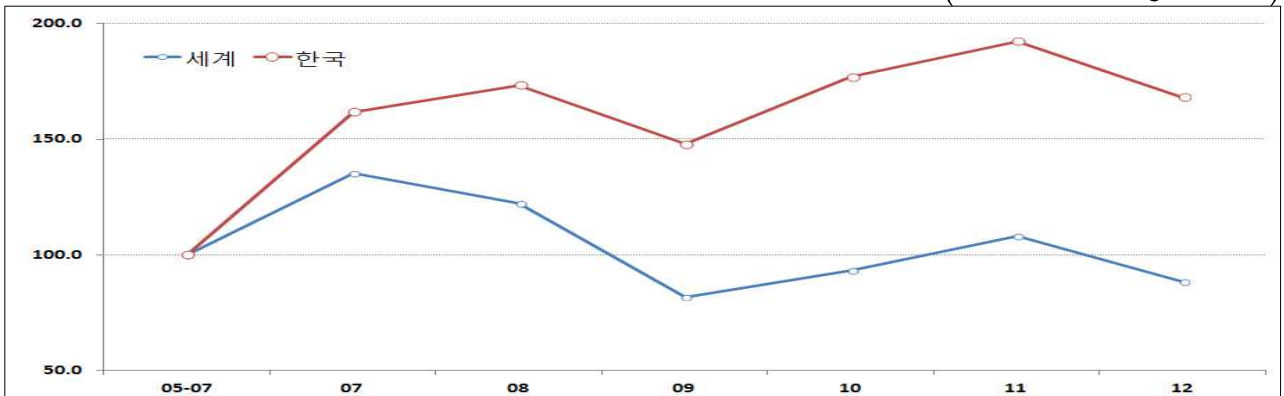
(억 달러)



자료: 수출입은행

<금융위기 이후 유출액 비교>

(‘05년~’07년 평균: 100)



자료: 전 세계는 UNCTAD, 한국은 수출입은행